특별기고

가나(仮名)와 와슈(和習)

-한자권의 에크리튀르(écriture)로서-

사이토 마레시(齋藤希史)*

들어가며

한자가 유통하는 지역 즉 '한자권'에서 도래한 문자를 지역 언어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운용하는가는 커다란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훈독(訓読)과 가나(仮名)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자에 숙달하였고, 독자적으로도 한자 및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었다.

한편 이러한 숙달 기법은 '간(漢)'에 대한 '와(和)'의 의식을 낳았다. 일본어에서 다시 훈독(訓読)을 거쳐 만들어진 한작문(漢作文)의 '와슈(和習, 번역자주: 한자를 사용해서 한시나 한문을 지을 때에 중국 본래의 용법이나 서법이 아닌 일본 독자의 방식에 따르는 용법)'와, 한자권에서 보편적인 용법인 가차(仮借)를 고유화한 서체(書體)로 바꾼 '가나(仮名)'이다. 전자는 소극적인, 후자는 적극적인 '와(和)'의 의식을 형성한다.

본고에서는 한자권에서의 에크리튀르(표기법)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가나(仮名)와 와슈(和習)를 중심으로 그 메카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 도쿄대학 준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문자와 언어

한자의 조형(祖形, 근원적 형태)이라 불리는 갑골문(갑골문자)은 기원전 13세기부터 11세기경 은나라 후기에 시작된 문자이지만 19세기말경 중국의 학자에 의해 발견되기까지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문자였다. 현재는 자체(字体)의 다양성을 근거로 4천자가 넘는 자종(字種)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1천자 이상이 해독되어서 은나라 역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갑골문이 해독되었다고 해서 은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파악할 수는 없다. 갑골문이 점을 치는 갑골(거북이 등딱지나 짐승뼈)에 점친 날짜, 내용, 판단,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 새겨진 것이라서 갑골문은 갑골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점의 내용이나 결과가 새겨진 갑골만이 신관(神官)으로서의 왕의 권위를 나타냈으며, 문자는 신성한 영역에 속하였다. 즉 문자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권적인 행위라서 문자가 일상적인 언어소통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갑골문자에 다양한 자체가 많다는 점, 후세의 한자와 같이 성부(声符)를 가진 문자가 적다는 점도 바로 갑골문이 일상적인 언어소통에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음을 시사한다. 많은 고대문자와 마찬가지로 갑골문자도 또한 일상생활과는 다른 질서형식을 가진 것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인간은 문자에 숙달된 후에 일상적인 언어소통을 목적으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에서는 청동기에 주조된 문자인 금문(金文)이 발달하였다. 주나라 시대에는 경사스런 날을 축하하기 위해 청동기가 주조되었고, 제사용 제기로써 사용되었으며 왕권의 상징으로도 보았다. 금문은 청동기 안쪽에 포상이나 임관(任官) 등의 기록을 새긴 것으로, 자체(字體)는 갑골문자를 계승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이 든다. 금문은 동기(銅器) 안쪽에 주조되었기 때문에 가늘고 긴 그릇은 글자를 해독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이 아닌 제사의 대상인 조상의 영을 향해서 새겨졌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청동기라는 매체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점도 갑골문자와 동일하다.

하지만 갑골문에서 금문으로의 이행은 두 가지 점에서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다. 한 가지는 은나라와 주나라가 서로 다른 종족이었고 따라서 언어도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언어를 초월해서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셈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문자의 질서가 언어의 질서와는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다른 한 가지는 봉건제로 인해 주나라가 지배영역을 확대함에 따라 포상이나 임관(任官) 또는 만족(蛮族)의 평정 등에 관한 기술이 점차로 상세하게 되었고 청동기에 문자를 주조하는 행위가 대륙 각지로 전파되었다. 이는 서기내용(書記内容) 및 사용영역의 확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주나라는 은나라처럼 점복(占卜)에서 권위를 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천명을 받은 왕에 의한 봉건제를 실시함으로써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고, 지배지역의 확대로 인해 문자가 사용된 영역과 유통된 영역도 확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결과 문자의 성격은 크게 변용하였다. 은나라에서의 문자의 특권성이 주나라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권위는 유지하면서도 통치를 위한 유용성으로 전화(転化)되었다. 즉 문자가 기록수단으로서의 범용성(汎用性)을 획득한 것이다.

범용성의 하나의 지표가 된 것이 일상언어(구두언어)와의 결합이다. 문자는 원래 일상언어와는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기호이므로 언어를 초월해서 유통되었는데, 동시에 문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려면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와의 명확한 대응관계가 필요하였다.

예를 들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어순의 언어라면 문자도 그 어순에 맞게 배열하면 언어로써 읽기가 쉬워진다. 만약 문자 배열과 언어 배열이 다른 경우에는 일본의 훈독(訓読)기호와 같은 것을 붙이면 된다. 여하튼 배열을 대응시킴으로써 언어의 배열요소로써의 단어를 문자표기할 수 있게 된다. 갑골문은 이러한 점에서는 초보적인 달성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언어화하려는 또 하나의 방법 즉 문자와 언어음성은 명확히 대응되지는 않았다. 주나라에서 전국시대에 걸쳐서 뜻부분과 소리부분이 합쳐진 형성자(形声字)가 증가함에 따라 이 대응이 현격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갑골문자에서는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던 형성자가 한나라 이후에는 80퍼센트를 상회하는 점도 이와 같은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자권의 성립

기록내용과 사용영역의 확대로 인해 언어와의 대응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종류가 증가하였다. 형성자는 일상언어를 문자화하는데 아주 유효한 방법이지만, 반대로 갑골문자에 형성자(形声字)가 적다는 점은 일상언어와 문자와의 관계가 그다지 긴밀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형성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중국대륙 각지에서 문자가 사용되게 된 점, 각 지역에서 통치행위가 독자적으로 행해지게 된 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자의 유통권이 용도면과 지리면에서도 확대된 것이다.

형성자뿐만 아니라 가차자(仮借字)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차는 어떤 말을 나타내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그 말과 같은 음을 가진 한자를 빌려서 나타내는 기법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아(我)'나 '무(無)' 등과 같은 기본 글자도 가차자(仮借字)라는 점이다. '아(我)'는 무기의 이름, '무(無)'는 춤을 춘다가 원래의 의미였는데 가차자로써 사용되고 나서는 오로지 '나', '없다'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들은 언어에 있어서 어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어(function word)이다. 이를 나타내는 문자가 가차라는 점은 문자가 우선 존재하였고 언어화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증거이다. 가차의 응용범위는 넓어서 기능어 이외에도 이 기법이 은나라에서 주나라, 주나라에서 전국시대로 확대되어 갔다.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자가 사물에서 독립한 점도 언급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 시기의 문자는 이제는 갑골이나 청동기 등의 사물과 함께 존재해야 의미를 갖는다는 특권성은 사라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그 자체로써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죽간(竹簡)이나 목간(木簡), 천(布) 등의 필기소재는 사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체로써의 이용성에 중점이 있었다.

현대에서도 중국대륙은 지역별 방언차가 크다. 하물며 고대시대는 민족집단도 다양하였고 원래 언어구조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단 문자가 전파되고 유통되면 각 지역에서 문자 사용법이 고안되었고, 형성이나 가차 등의 기법으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다. 문자의 빅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법은 문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 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 전국문자(戦国文字)에는 지역 별로 아주 다른 서체가 나타나는데, 같은 지역이라하더라도 문자의 주술성이나 권위가 중시되었던가, 혹은 읽고 쓰기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중시되었던가에 따라 서체가 갈라져서, 서체를 통일할 필요가 생겼다.

즉 전국시대의 군웅할거(群雄割拠)에서 진시황의 통일까지의 과정은 대륙의 각지에서 확산한 문자를 다시 같은 규범으로 통일하려고 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지역별로 다양한 서체가 생겼다는 사실은 반대로 서체통일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진나라가 자체의 통일을 계획해서 전서(篆書)를 제정한 점도 더 완벽한 집권적 통치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갑골문이나 금문을 근원적 형태로 삼는 문자를 '한자(漢字)'라고 부르는 이유는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범용성과 유통성을 획득한 문자가 광대한 지역을 영유한 진한(秦漢)통일제국의 문자로서 비로소 보편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갑골문이나 금문은 범용성이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한자'가 아니다. 은나라나 주나라 왕조에서 사용된 문자가 '한자'가 된 것은 광활한 대륙을 영유한 '중국'의 성립과 같은 의미이며 이는 바로 '한자권'의 성립인 것이다.

전해지는 문자

일단 대륙에서 한자권이 성립하면 지리적으로는 경계지역에 위치한 조선반도나 일본열도에서도 대륙국가의 정치적 인력(引力)에 따라 한자권으로의 참입(参入)이 시작된다. 일본열도에서 처음에 한자가 사용된 이유는 바로 이 한자권과의 외교관계를 체결하기 위함이었지 일본열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기록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앞 절에서 개관했듯이 이와 같은 현상은 대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대륙이든 반도든 열도든 문자는 처음에 그리고 항상 '전해지는' 것이었다. 주나라는 은나라에서, 장강(長江)유역의 오나라·초나라는 황하유역의 중원에서, 조선반도나 일본열도는 대륙에서 문자가 전해졌다. 갑골문이 탄생한 은나라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도 갑골문은 신과 관련된 특별한 기호였고, 일상언어와는 별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역시 '전해지는' 것이었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반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구어체와 달리, 문자는 반드시 '학습'을 필요로 하며, 계통발생적으로도 개체발생적으로도 어디에서인가 '전해지는(갖고 오는)'것이다.

문자 사용자와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문자로 기록된 표현 즉 문장은 일상언어의 간섭을 받아 언어화되어 간다. 문자는 일상언어용으로 잉태된 것은 아니지만 문자가 널리 사용되려면 일상언어와의 대응관계가 명확한 편이 유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자열(文字列)로 복잡한 의미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어떠한 질서형식 즉 문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문법이 일상언어의 어법과 유사하면 읽기도 쓰기도 쉬워진다. 언어음성에서 문자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되면 알지 못하는 문자라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일상언어에서 유추할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고 문자열을 구성해야 한다. 이 현저한 예가 형성자의 증가이다. 전국시대의 문장에서 자주 사용된 감탄이나 억양을 나타내는 조사(助辞, 모두 가차자)도 일상언어와의 대응으로 인해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장은 일상언어와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고 문장으로써의 질서를 지키려고 한다. 문자표현이 일상언어의 간섭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언어도 문자표현의 간섭으로 인해 '문자화'가 된다. 구어체는 유동적이고 변화하기 쉽지만 문자와의 대응관계가 확립하면 문자 내지 문장에 의거한 표준화와 규범화가 일어난다. 춘추전국시대에는 문자표현과 일상언어의 상호간섭이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 문언(文言, 중국고전문・한문)이라 불리는 문체가 성립하여 하나의 서기언어(書記言語)세계가 확립되었다. '한자권'은 단순히 문자의 유통권이 아닌 문언이라는 서기언어의 사용영역이다.

한자권이 확대됨에 따라 문장과 언어가 syntax(통사구조, 문법)의 대응을 발견하기 쉬운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국티벳어족지역에서는 한자한문이 이 지역에서 형성된 점에서 syntax의 대응을 발견하기 쉽지만, 다른 어족계통언어의 조선반도나 일본열도에서는 예를 들면 동사나 목적어의 어순이 반대로 되는 통사구조의 대응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지역(한자권 경계역)에서는 문자를 지역언어화하기 위한(지역언어로서 읽기 위한) 기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훈독'이 바로 이 기법이다. 또한 지역언어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문자화하기 위해서 문언이외의 통사구조에 근거한 서기법(書記法, 한자문의 다양성)이 모색되게 되는데, 『고지키(古事記)』등에서 사용된 소위 변체한문(変体漢文, 번역자주: 한문을 모방한 일본문으로, 정규 한문에 없는 문자, 어휘, 어법을 포함한다)으로 불리는 서기법을 말한다.

사실 통사구조의 대응을 발견하기 쉬운 지역에서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문장이 읽기 쉬워졌다고 앞서 말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 조자(助字, 문의 구성과 관련된 부속어를 나타내는 문자)의 증가였다. 문말의 '야(也)', '언(焉)', '재(哉)', '호(乎)' 뿐만 아니라, 문중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어(於)', '이(而)'나 '피(被)', '사(使)'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들 문자가 모두 가차의 용법으로 조자(助字)가 된 점은 새삼 강조해야 할 것이다. 『고지키』의 문장이 문자와 언어의 상호교섭으로 생겨난 점은 일본열도의 특유한 점이 전혀 아니며 원리적으로 제자백가의 문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문자와 언어의 관계는 어떠한 지역이더라도 항상 긴장을 수반한 것이었는데 언어(일본어)와 구문이 다른 문장(한문)을 사용하게 된 일본열도에서는 이러한 점이 일본 독특한 사정으로써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현재화(顕在化)하기 쉬운 점도 있지만 거기에는 '와(和)'(倭)라는 자기의식(自己意識)을 둘러싼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와슈(和習)'라는 시선

'와(和)'라는 의식에서 문자와 언어와의 관계를 해명한 인물은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이다. 소라이는 일본인이 쓴 한문에 자주 지적되는 '와슈(和習, 倭習, 和臭)'라는 말을 명확히 정의해서 사용하였는데, 「문계(文戒)」(『蘐園隨筆』巻五)의 '와지(和字)', '와쿠(和句)', '와슈(和習)'의 항목에서 일본어의 간섭을 받아서 한문의 파격이 발생했음을 논하였다.

'와지(和字)'란 일본에서 발생하고 발달한 문자로, 한문을 일본식으로 훈독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관(観)'과 '견(見)'은 일본훈(和訓)으로 모두 '미루(みる)'로 읽기 때문에 한문을 쓸 때에 오류가 생긴다. 이러한 지적은 오규 소라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소라이가 지적한 '청(聴)'과 '문(聞)'의 차이 등은 현대 일본문을 쓸 때에도 규범으로써 참조될 정도이다. 또한 한 글자 뿐만 아니라 '명맥(命脈)'이나 '유희삼매(遊戯三昧)' 등과 같이 한자로 쓰여 있지만 한적에 없는 용법인 경우에도 '와지(和字)'라고 불러서 훈계하고 있다.

'와쿠(和句)'란 일본어문(和文)의 통사구조에 영향을 받은 한문을 지칭한다. 소라이는 '반드시 그 근원이 없어서는 안된다(必ず其の本無かるべからず)'를 한문으로 '불가필무기본(不可必無其本)'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고 '필부무기본(必不無其本)'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금 더 미묘한 예를 들면 '지역(只亦)'는 오용이고 '역지(亦只)'로 써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소라이가 완벽한 문언(文言)을 사용하려고 한데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미묘함의 최고조가 '와슈(和習)'이다.

> 和習者謂既無和字又非和句、而其語気声勢不純乎中華者也。此亦受病於其従幼習熟和訓倒之読、而精微之間不自覚其非已。
>
> (와슈(和習)라는 것은 와지(和字)도 아니고 와쿠(和句)도 아니지만, 그 어조(語気)나 성세(声勢)가 순수한 중화(中華)의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것도 또한 어렸을 때부터 일본식 훈독(和訓転倒)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소라이는 한 예로써 '이(而)', '즉(則)', '자(者)', '야(也)'등의 어조사(助字)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그것을 가르쳐서 善으로 만들 수는 없다(それを教えて善におもむかせることはできない)'를 한문으로 쓰려면 '불능사기교이지선(不能使其教而之善)'이 아니라 '불능교기지선(不能教其之善)' 또는 '불능사기수교이지선(不能使其受教而之善)'으로 써야 하고, 'さらにこれ以上の道理は説かない(더욱이 이 이상의 도리는 설명하지 않는다)'라면 '갱불설일층지리(更不説一層之理)'가 아닌 '갱설일층불거(更説一層不去)'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되도록 '중화(中華)'의 말답게 써야 한다는 것이 소라이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주장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문장을 짓는 행위에는 항상 파격이 일어나는 법이다. 그리고 일상언어나 지역언어의 간섭으로 인해 파격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쉬운 법이다. 속어든 불전(佛典)이든 정해진 규칙이라고 여기지 않는 어법이나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소라이가 비난한 어조사(助字)를 많이 사용한 예를 들면 육조(六朝)의 일화집『세설신어(世説新語)』의 문장을 들 수 있다. 은나라 이전의 문장에 비해 구어가 많고 문체에도 어조사(助字)가 현격히 많은 점 등을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역불전(漢訳仏典)에서 어법은 물론 한자조차도 그때까지 없었던 글자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문자나 문장은 끊임없이 언어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파격에 의한 전개가 없으면 문체의 변화도 어휘의 증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파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와(和)'라는 의식하에 파격을 정하고 그 위에 가치판단을 한다는 점이다. 소라이가 지적한 와슈(和習)의 예 이외에도 송대 이후의 선승(禅僧), 유가(儒家)의 어록(語録), 서역에서 출토된 돈황변문(敦煌変文) 등에서도 동일한 예가 발견된다는 지적도 있어, 중국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와슈(和習)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파격이 중국의 속어나 서역의 언어, 혹은 불전의 간섭을 받은 것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서기문(書記文)의 언어화라는 하나의 원리로써 이해해야 한다. 와슈(和習)은 한문이 지역언어화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지만 이러한 현상을 '와슈(和習)'로써 특별히 내세우는 것은 역시 다른 문제라고 하겠다. 참고로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는 불전의 파격을 '텐지쿠슈(天竺習)'라고 하였다.

> もろの仏経のはじめに、如是我聞といへること、さまざま故ある事のごといひなせれども、末々の文にかなはず、はじめにかくいへるは、いずれにしてもひがことにて、つたなきことなり。又如是我聞とこそいふべけれ、言のついでも、いとつたなし。これらのこと、天竺のなべてのならひにもあるべけれど、なほ翻訳者も拙し。すべて漢学びする人の、手をかけるにも、詩文を作れるにも、和習々々と、つねにいふことなるを、仏書の文には、又天竺習の多きなり。『玉勝間』十四
>
> (모든 불교경전의 모두(冒頭)에는 여시아문(如是我聞, 번역자주: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끝부분에 오지 않고 모두(冒頭)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에 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서투른 표현이다. 말의 어순도 아주 서투르다. 이러한 점은 중국 전역에서 나타나지만 번역자도 말할 것도 없다. 한학자가 번역한 것도, 시문을 짓더라도 와슈(和習)이 항상 나타난다. 불교문서에는 텐치쿠슈(天竺習)가 많다.)『다마카쓰마(玉勝間)』十四

'불교경전'이나 '천축(天竺, 번역자주: 인도)'을 예를 들어서 '와슈(和習)'의 상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리나가(宣長)도 이러한 '슈(習, 번역자주: 독특한 기법)'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장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다.

소라이의 와슈론(和習論) 특징 중의 하나는 '문장비타야, 중화인어언야(文章非它也、中華人語言也, 문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중화인의 말이다)'(「文戒」)와 같이 문자와 언어를 다른 질서로써 파악하지 않고 연속한 말로써 파악한 점이다. '문장=어언(語言)'이라는 정식(定式)은 바로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문자가 발생되었다는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해 언어와 문장의 어긋남은 정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식되어 '성인(聖人)의 언어'로의 지향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반복해서 기술했듯이 문자표현과 일상언어는 다르다.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문자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언어와 문자 간에는 당연히 거리가 있고 긴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거리와 긴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리적으로 해소불능한 것이다. 읽고 쓰는 행위와 말하고 듣는 행위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고, 이 차이로 인해 언어와 문장을 역사적으로 축적시키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나 소라이는 언어와 문장이 일체화된 상태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와슈(和習)를 의식하고 언어학습(중국어학습)으로 문장의 올바른 규칙을 지켜려고 한 방법은 성인(聖人)의 언어를 매개로 한 '문장 즉 언어관'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문장 즉 언어관'은 왜 발생한 것인가? 하나의 계기로써 한자와는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나(仮名)'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자로 문장을 쓰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가나로 언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해 버린 점, 거기에는 함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노리나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皇国の言を、古書どもに、漢文ざまにかけるは、仮字といふものなくして、せむかたなく止事を得ざる故なり。今はかなといふ物ありて、自由にかゝるゝに、それを捨てて、不自由なる漢文をもて、かゝむとするは、いかなるひがこゝろえぞや。『玉勝間』十四

(일본의 말을 옛 문서에 한문으로 쓸 때에 가지(仮字)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나가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이를 버리고 불편한 한문을 사용하려고 하니 얼마나 잘못 이해하는 것인가?)『다마카쓰마(玉勝間)』十四

소라이는 바로 이 '불편한 한문으로(不自由なる漢文をもて)' 쓰려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소라이와 노리나가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일본인이라면 가나문(仮名文)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중국인이라면 한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소라이는 한문을 자유롭게 쓰려면 마치 중국인인 것같이 중국의 언어에 숙달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중국에서도 구어와 문어의 차이가 심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소라이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장=고인(古人)의 언어'라는 등식을 가져온 것이었다. 고대의 문장을 존중하는 '고문사학(古文辞学)'을 소라이가 제창한 것과 '문장=고인(古人)의 언어'라는 등식은 표리일체이다. 그리고 언어에 숙달하면 문장은 자유자재로 써진다는 관념의 지주(支柱)는 실은 노리나가가 명언했듯이 일본인이라면 가나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의식인 것이 아닌가?

가차(仮借)에서 가나(仮名)로

가나(仮名)의 발생은 이미 기술했듯이 가차라는 한자의 표음적 용법을 전개해서 생겨났다. 원래 해당하는 문자가 없는 말을 기록하기 위해 생긴 가차의 기법은 한자문의 적용범위를 일상세계로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는 다른 지역의 말을 기록하는데도 유효한 기법이었다. 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지명이나 인명은 자주 가차 기법으로 표기되는데, 예를 들면 Obama는 '오파마(奥巴馬)', 히미코는 '비미호(卑弥呼)'로 표기된다.

한자가 범용문자로서 사용되려면 표음적 방법이 꼭 필요했는데, 가나도 마찬가지로 표음적 방법으로 생겨났다. 중국대륙에서 한자문의 범용화와 통일화가 일어난 시기의 가차와, 한자문과 언어와의 대응관계가 질서 있게 정리된 후에 표음적 용법인 점을 의식한 가차와는 확실히 위상의 차가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원리로써의 동일성이다. 한자의 사용영역 확대가 가차라는 용법을 항상 수반한 점, 처음에는 편의적 방법으로써 사용된 것이 결국 한자를 사용하는데 불가결한 방법이 된 점에 착목하면, 가차가 반드시 한자에 있어서 외재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가차라는 기법의 시대에서의 위상차를 한자권이 어떻게 확대해 갔는가를 측정하는 연륜(年輪)으로써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자권의 확대에 즈음해서 이 가차라는 기법이 일본열도에서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말 자체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게 된다. 소위 만요가나(万葉仮名)이다.

만요가나는 고유일본어(倭語, 和語)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 음가나(音仮名)와 훈가나(訓仮名)로 나뉜다. 음가나는 고유일본어(倭語)를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가차 그 자체이다. 흥미로운 것은 훈가나(訓仮名)이다. 예를 들면 인명 '아리마(ありま)'를 '아리진(阿利真)'으로 표기하면 '아(阿)'와 '리(利)'는 한자음이지만, '진(真)'은 한자음의 '신(シン)'이 아니라 훈의 '마(マ)'이다. 이 '마(マ)'가 바로 훈가나이다. 이러한 훈가나는 한자의 의미가 아니라 한자의 음을 표기하기 위해 훈을 사용한 점에 특징이 있다.

원래 '훈'이란 '훈고(訓詁)'에서 나타나듯이 한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고어를 현재의 말로 설명하는 것도 '훈'이고, 한자권 확대로 한자를 현지어로 해석하는 것도 '훈'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개개 글자에 그 지역어의 해석이 고정화되면 그것은 의미인 동시에 그 지역어로 읽을 때의 음이 된다. '진(真)'에 고유일본어의 '마(ま)'에 해당하는 훈이 성립했다는 것은 고유일본어의 음과 의미가 함께 이 글자와 결부되었음을 의미한다. 뒤집어 말하면 문자가 없었던 고유일본어가 음과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문자로써 한자를 이용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고유일본어의 음이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와쿤(倭訓)'이다.

와쿤(倭訓)이 성립함으로써 이번에는 와쿤(倭訓)으로 가차를 만들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차 용법은 예를 들면 '진(真)'이라는 글자는 6세기에서 8세기에 동남아시아에서 번성한 진랍(真臘, チャンラ)국의 '진(真)'을 사용하지만, 이에 비해서 '아리진(阿利真)'의 '진(真)'은 와쿤(倭訓)의 '마(マ)'를 사용한다. 한자와 고유일본어와의 거리가 아주 근접해졌기 때문에 해당 한자의 독음이 원래의 한자음인지 아니면 고유일본어에서 유래한 와쿤(倭訓)인지 그 구별이 애매하게 되었다. 이것도 또한 문자의 언어화(현지화)가 급속히 진행된 현저한 예이다.

다만 만요가나를 마가나(真仮名)라고도 하듯이 음가나이든 훈가나이든 문자로써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고유명사 등의 표기로만 보면 한자문에 만요가나가 섞여 있더라도 독해하는데는 별로 곤란하지 않다. 그러나 고유일본어에 대응시키는 문장을 쓰려고 해서 마가나(真仮名)를 많이 사용하면 한자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난해한 문장이 된다. 오오노야스마로(太安万侶)는 이러한 곤란함을 『고지키』의 서문(序)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然上古之時、言意並朴、敷文構句、於字即難。已因訓述者、詞不逮心、全以音連者、事趣更長。是以今或一句之中、交用音訓、或一事之内、全以訓録。
>
> (상대시대에는 말도 의미도 순박하고 정직해서 문장을 쓸 때에 한자(渡來文字)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모든 문장을 훈(한자)으로 쓰려고 하면 의도하고자 하는 표현을 다 담을 수 없어 어긋나 버리고 반대로 모두 음(고유일본어)으로 쓰려고 하면 문자열이 길어지고 만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구라도 음과 훈을 섞어서 사용하고, 알기 쉬운 경우에는 긴 표현이더라도 모두 훈으로 기록하였다)

상기의 '음'은 고유일본어를 가차로 직접 표기한 마가나(真仮名), '훈'은 고유일본어에 대응하는 한자(한어)를 말한다. 음이나 훈 어느 한쪽으로만 표기하는 곤란함을 기술한 것으로, 1자 1음의 '음(고유일본어)'을 섞어 쓰면서 전체적으로 '훈(한자)'을 주로 사용한 것이 『고지키』의 문장이었다. 표음문자의 표기 시스템이 보급되어 구어문이 발달한 현대의 감각으로 본다면 '사취갱장(事趣更長, 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열이 길어지고 만다)'이더라도 불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당시의 한자권의 문자사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해서는 체계적인 문장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문자와 언어, 즉 문자열의 세계와 구어체의 세계는 접해있으면서도 다른 것이었다.

물론 이 일절(一節)의 안목은 문장 그 자체의 곤란함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문자표현으로는 다 나타낼 수 없는 '언(言, 말)'과 '의(意, 의미)'가 '상대시대'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다. 요약하면 한자라는 문자의 질서 이전에 '언(言)'과 '의(意)'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일절(一節)의 요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 '언(言)'과 '의(意)'에 이르는 통로로써 '훈(訓, 한자)'이 아닌 '음(音, 고유일본어)'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잘 알려져 있듯이 『고지키』의 '음(音)'표기는 신의 이름이나 상대가요 표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기는 음성이 주술적 효과를 가진 점과 관계가 있겠고 이것이 '상대시대'를 상징하는(혹은 소환하는) 음성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훈'을 사용하면 '사불체심(詞不逮心, 의도하고자 하는 표현을 다 담을 수 없어 어긋나 버리고)'이 되지만, '음'으로 표기하면 상기의 폐단이 없어진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문장이 되지 않는 것을 살피는 방법으로써 '음'은 존재한다. 소라이나 노리나가가 추구했던 문자와 언어 간의 직접성은 각각 성인(聖人)의 마음이나 야마토고코로(大和心, 번역자주: 일본민족 고유의 정신)지향의 직접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와 같은 원리는 여기서부터 배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음'표기는 여기에서 실용적인 것에서 특권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얻었다고 보겠다.

이 점은 『만요슈(万葉集)』의 상대가요 표기가 '훈(訓)'자를 주체로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음(音)'을 표기한 방식이 다수인 점, 1자 1음의 마가나(真仮名)표기가 오히려 소수인 점과도 관련이 있겠다. 음가나(音仮名)든 훈가나(訓仮名)든 조선반도나 일본열도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실용화되고 있었지만 문자표기의 중심에 위치하지는 않았다. 만약 이를 문자표기의 중심에 둔 것이라면 신의 이름이든 상대가요든 음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지지(버팀목)가 필요했다. 『만요슈(万葉集)』의 1자 1음 표기주의가 아주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가나(仮名)가 실용적인 편리성에서 발생한 점은 부정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수 없지만, 어떤 국면에서 가나가 특별한 것으로 바뀐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주의가 없으면 일본어표기에서 가나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할 수 없다.

가나(仮名)의 이중성(二重性)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마가나(真仮名)는 한자의 초서체에 바탕으로 한 소가나(草仮名)로 발전한다. 그러나 소가나(草仮名)도 단순이 쓰기 편리함에서가 아니라 중국육조의 서사(書写)기교의 발전 및 왕희지(王羲之) 등 권위 있는 서예가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육조시대에는 해서(楷書)와 초서(草書)가 명확히 나뉘어져 각각 독자적인 기법이 발전하여 이로 인해 서사(書写) 문자로써 양자는 다른 질서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서체는 어떤 경우라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공사(公私)에 따라 해서와 초서를 구분하는 등의 규범이 있었다. 음을 표기하기 위해 초서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반 위에 선 하나의 고안이지 단순히 한자를 흘려서 쓴 것만은 아니었다. 또한 주의할 점은 해서와 초서는 서사(書写) 기교 상 상하 구별이 없고 오히려 양쪽의 서체 숙달이 일류의 서예가에게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연속해서 쓰는 초서는 서(書)의 기(気)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주장도 있다. 즉 새롭게 탄생한 초서라는 서체를 잘 이용한 것이 소가나(草仮名)이었다.

표음(表音)을 주된 취지로 한다면 문자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제로는 초서를 사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측면도 당연히 있겠다. 가타가나(片仮名)의 원류인 랴쿠카나(略仮名)도 동일하게 한자와의 변별성과 서기(書記)의 실용성에 맞게 한자를 간략화한 서체에서 출발한 것이고, 기능면에서 양자는 공통점을 갖는다. 어느 쪽이든 문자로써 한자와는 다른 질서를 구성하는데 소가나(草仮名)를 더욱 흘려 쓴 것이 히라가나(平仮名)가 되고 랴쿠카나(略仮名)는 가타가나(片仮名)로 발전했다.

실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나는 언어음성표기용으로 특화된 한자의 하나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체에 불과하다. 모든 가나는 원칙으로써 원래의 한자로 변환할 수가 있다. 또한 가나라면 반드시 일본어문(和文)이라는 것은 아니다. 랴쿠카나(略仮名)는 고전문을 고유일본어의 음성으로 읽기 위한 보조기호이고, 소가나(草仮名)로 한자음을 표기하는 예도 많다. 히라가나나 가타가나가 널리 사용되게 되고 나서는 한자음을 배우려면 우선 가나를 학습한다는 시스템이 생긴 것도 가나의 음성표기기능을 활용한 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나는 한자표기 보조 수단에 그치지 않고 한자표기에 대치된 존재로서 그 자체의 세계를 만들었다. 대치성은 소가나(草仮名)에서 히라가나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저히 나타난다.

앞서 말했듯이 가나로 표기한다는 것 즉 표음식으로 쓴다는 것은 문자와 언어간의 직접성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특권적인 성격을 띠는 계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특권성이 가나와 한자를 대조시켜서 가나를 와(和), 한자를 간(漢)으로 하여 마치 와칸(和漢)의 이중성(二重性)이 존재하는 듯한 시선을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중성은—『고지키』의 '上古之時(상대시대)'가 하나의 가정으로써 밖에 존재하지 않듯이—허구(虛構)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허구로써의 이중성은 다양한 국면에서 연출되게 된다. 『고지키』에서 마가나(真仮名)로 상대가요를 기록함으로써 한자문의 세계에 가요의 세계를 대치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록된 가요는 한자의 가차용법으로 표기된 문자열에 불고하지만, 표기된 세계의 내부에서는 특권적인 존재인 것처럼 기능하였다. 일부러 서문에 '음'과 '훈'의 대비를 기술한 것도 이 허구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허구가 더 진행되면 소가나(草仮名)의 특권화가 일어난다. 소가나로 고유일본어(和語)를 표기함으로써 고유일본적(和なるもの)인 문자화와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 히라가나의 탄생은 자주 말해지듯이 '와(和)'의 탄생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유일본적(和)인 요소가 저절로 히라가나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한자라는 문자를 변형시키고 와(和)에 대치시킴으로써 비로소 성립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소가나에서 히라가나에 이르는 과정에 비해서 라쿠가나(略仮名)에서 가타가나에 이르는 과정은 단지 한자문의 보조기호로써 기능한 것으로, 와칸(和漢)의 이중성이라는 허구에서는 종종 간(漢)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가타가나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근세후기 서구어의 수용시에도 중시되어 명치 이후의 외래어표기의 원류가 된 점도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타가나의 실용적 측면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히라가나든 가타가나든 한자권의 표음표기는 실용적 측면과, 문자와 언어와 관련된 측면의 복층성(複層性)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환언하면 한자 읽기쓰기가 불가능한 자를 위한 문자라는 측면과 한자어(漢語)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라는 측면이다.

예를 들면 가마쿠라(鎌倉)시대 승려 지엔(慈円)은 사론서『구관쇼(愚管抄)』에서 가나 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コレダニモコトバコソ仮名ナルウヘニ、ムゲニ可笑シク耳ヂカク侍レドモ、猶心ハ上ニ深ク籠リタルコト侍ランカシ。ソレヲモコノ可笑シク浅キ方ニテ{賺}{すか}シ出ダシテ、正意道理ヲワキマヘヨカシト思ヒテ、タダ一筋ヲワザト耳遠キ事ヲバ{心詞}{ココロコトバ}ニケヅリ捨テテ、世ノ中ノ道理ノ次第ニ作リ変ヘラレテ、世ヲ守ル、人ヲ{守}{も}ル事ヲ申シ侍ルナルベシ。モシ万ガ一ニコレニ心付キテ「コレコソ無下ナレ、本文少々見バヤ」ナド思フ人モ出デコバ、イトド本意ニ侍ラン。[…]ムゲニ軽々ナルコトバドモノ多クテ、ハタト・ムズト・キト・シヤクト・キヨトナド云フ事ノミ多ク書キテ侍ル事ハ、和語ノ本体ニテハコレガ侍ルベキト覚ユルナリ。訓ノ読ミナレド、心ヲサシ詰メテ字尺ニ表ハシタル事ハ、猶心ノ広ガヌナリ。真名ノ文字ニハスグレヌ、コトバノムゲニ只事ナルヤウナルコトバコソ、日本国ノコトバノ本体ナルベケレ。
>
> ソノ故ハ、物ヲ言ヒ続クルニ心ノ多ク籠リテ時ノ景気ヲ表ハスコトハ、カヤウノ言葉ノサハサハト知ラスル事ニテ侍ル也。児女子ガ口遊くちずさみトテコレラヲ可笑シキコトニ申スハ、詩歌ノ誠ノ道ヲ本意ニ用ヰル時ノコトナリ。愚痴無智ノ人ニモ物ノ道理ヲ心ノ底ニ知ラセントテ、仮名ニ書キツクルヲ、法ノ事ニハ、タダ心ヲ得ン方ノ真実ノ要ヲ一ツ取ルバカリナリ。コノ可笑シ事ヲバ、タダ一筋ニカク心得テ見ルベキナリ。「巻七」

(말은 가나(仮名)라고 해도, 아주 재미있고 흔하지만, 그래도 사상이 깊이 담겨 있다. 이를 이 재미있고 천한 방면으로부터 유도하여 올바른 의미, 도리를 분별하고자 생각한다. 다만 낯선 것을 사상, 언어로 깍아 없애서 세상의 도리가 점차 새롭게 만들어져 세상을 지키고 사람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만에 하나 이를 알아차려서 '이래서는 너무 심하다. 원문(고전)이라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람도 나온다면 정말이지 희망하는 바라고 하겠다. (중략) 너무 속어적인 말이 많아서, ハタト・ムズト・キト・シヤクト・キヨト 등의 말만 많이 사용된 점은 일본어의 본모습이라고 생각된다. 훈(訓)을 읽는 방식에서도 의미를 잘 곱씹은 후에 한자 해석으로 나타낸 말은 역시 의미가 확장되지 않는다. 한자어와 비교해서 아주 평범한 말이 일본국문의 말의 본모습이다. 그 이유는 사물을 표현하는데에 의미가 많이 담겨서 사계절 변화의 현상을 나타낼 때에 명료하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나 아낙네가 읊조림으로 이를 재미있게 말하는 것은 시나 가요의 진정한 도를 참마음으로써 사용할 때이다. 어리석고 학식 없는 사람에게도 사물의 도리를 진실로 알리려고 가나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만 진정한 필요성을 한 가지 취할 따름이다. 이 재미있는 것을 오로지 이렇게 마음에 새겨 보아야 한다.)「권7(巻七)」

가나로 쓰는 것을 무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자어와 비교해서 아주 평범한 말이 일본국문의 말의 본모습이다(真名ノ文字ニハスグレヌコトバノムゲニタヾ事ナルヤウナルコトバコソ、日本国ノコトバノ本体ナルベケレ)'라고 기술하였다. 여기서도 실용 목적인 가나와, 고유일본어의 세계를 위한 가나라는 이중성을 감지할 수가 있다.

나가면서

와슈(和習)과 가나(仮名)는 일본 고유의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 사상(事象)이다. 그러나 한자권의 문자와 언어의 운용 방식을 광범위하게 조감하면 반드시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자로 문장을 쓴다는 것 자체에 미리 내포된 메카니즘이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고유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계에서 얻은 결론을 말하면 와슈(和習)도 가나(仮名)도 '한자권의 문자와 언어의 거리'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자와 언어의 거리는 이것이 반전(反轉)되면 문자와 언어의 직접성 또는 고대 성인(聖人)으로의 직접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성, 고대 일본으로의 직접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거기에서 마음이 담긴 말로써 고유일본어(和語)라는 개념이 형성되었고, 자연히 있는 그대로의 일본이라는 관념이 성립한다. 여기에 대치되는 것이 중국이며 한자이다.

필시 이러한 이중성도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일본에서는 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현상으로 인해 현재화(顕在化)되어 있지만, 문자와 언어가 각각 다른 질서를 지향하는 한 어떠한 지역이라도 이러한 이중성이 당연히 시스템으로써 조직 내에 편입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阿辻哲次『漢字の文化史』ちくま学芸文庫, 2007。
犬飼隆『漢字を飼い慣らす―日本語の文字の成立史』人文書館, 2008。
大西克也 · 宮本徹『アジアと漢字文化』放送大学教育振興会, 2009。
沖森卓也『日本古代の文字と表記』吉川弘文館, 2009。
金文京『漢文と東アジア―訓読の文化圏』岩波新書, 2010。
神野志隆光『漢字テキストとしての古事記』東京大学出版会, 2007。
斎藤希史「読誦のことば―雅言としての訓読」(『続「訓読」論』勉誠出版, 2010)。
白川静『漢字の世界 1　中国文化の原点』平凡社東洋文庫, 1976。
東京大学教養学部国文 · 漢文学部会編『古典日本語の世界―漢字がつくる日本』東京大学出版会, 2007。
西田竜雄『東アジア諸言語の研究　巨大言語群＝シナ · チベット語族の展望』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0。
吉川幸次郎『漢文の話』ちくま学芸文庫, 2006。

[附記] 이 보고는 근간『古典日本語の世界 2』(仮題, 도쿄대학 교양학부 국문 한문학부회편)에 실릴 문장을 토대로 해서 작성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